남북 '개성접촉' 후속대화 가능할까

北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일방 통보

정부 "신뢰구축이 우선"…추가 접촉 가능성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사·외교 회담을 제외한 첫 남북 당국간 만남이었던 지난 21일 '개성접촉' 이후 남북관계가 어디로 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사실상의 첫 당국간 만남을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상대방인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북한은 이번 개성접촉에서 실질적 대화를 하려 하기 보다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한편 1인당 월평균 70달러 수준인 저임금과 '토지사용료 징수 10년 유예' 등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적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개성공단 파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공단을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포석에 가까우며 남북 대화 관련 긍정적 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22일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들을 궁지로 몰아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잘 되면 근로자 임금, 토지이용료 등의 경제적 이익까지 얻겠다는 생각인 듯하며 다른 영역에까지 대화를 확대시킬 생각은 별로 없는 듯 했다"며 "이번 접촉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미뤄 아직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화할만큼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건과 억류된 유씨 문제 등이 남북관계의 화약고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낙관론을 품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날 북측은 유씨를 접견하게 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거부했고 현인택 통일장관도 구금된지 24일째인 유씨의 상태를 '부당한 억류'로 규정하며 강한 대응을 예고, 유씨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이 민감한 시기에 당국간 접촉을 가졌고 관심사는 전혀 다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다시 만날 필요를 제기함으로써 추가적인 접촉이 이뤄질 공산이 커진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접촉이 계속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남북관계는 양측 당국자들이 개성공단 문제로 다시 대면해야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한 임금인상 등을 놓고 남북간 후속 협의가 진행될 때 북한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고집할 경우 남북관계는 희망을 찾기 어렵지만 현실적인 수준의 요구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남북이 실무적인 대화를 진행할 경우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로마 창건 2762주년 가장행렬 이탈리아의 로마 창건 2762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고대 로마인들의 모습을 재현한 가장행렬이 콜로세움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日 의원들 야스쿠니 단체 참배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21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계 의원들이 22일에는 이 신사를 단체로 참배했다.

이날 오전 춘계대제가 열리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87명이다.

이들은 중의원 의원 61명, 참의원 의원 2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다케시타 와타루 재무부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산업 부대신, 야마우치 도시오 문부과학부대신 등 10명이 참석했다.

자민당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지지단체인 일본유족회 회장 고가 마코토 당선대위원장, 이 모임 부회장인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원 등이 참배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다나부 마사미 전 농림수산상, 국민신당에서는 와타누키 다미스케 대표 등이 참가했다.

이 모임 회장인 시마무라 요시노부 전 농림수산상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아소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참배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만큼 '마사카키' 나무 봉납을 통해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매년 봄·가을 야스쿠니 춘계 및 추계대제 기간에 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記者 칼럼

정광학원, 실력 광주 '옥에 티' 될라

박진표 〈사회 1부 기자〉

광주교육계는 요즘 잔칫집 분위기다. 5년간 수능 성적 전국 1위 등 각종 교육 지표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 곳만은 초상집 분위기다. 바로 정광학원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정광학원이 교원 6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장과 이사, 정광고 교장, 교감(현 정광중 교장) 등 4명의 해임을 법인에 요구했다.

이후 이사장과 이사는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나머지 두명의 징계 여부는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가 내부 반발로 연기되면서 23일로 미뤄졌다.

그런데, 정광학원의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징계 대상자들은 반성은커녕 교사에게 자신들의 신변 변화는 없다며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해당 학교 일부 교사의 말이다.

시 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각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광학원은 징계권은 법인측에 있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시 교육청이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함부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안이한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성적은 전국 최고를 자부하는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독 청렴도 면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광학원도 최근 명문고 대열에 진입하는 등 '실력 광주'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 이번 비리로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말았다. 정광학원은 23일 학교는 물론 '실력광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징계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격려의 박수를 받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고집한다면 실력광주의 '옥에 티'라는 불명예와 함께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lucky@

DJ, 14년만에 귀향

오늘 함평다이너스티CC 오찬

14년 만에 고향을 찾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3~24일 함평과 목포를 거쳐 하의도를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23일 오전 9시10분 고속철도(KTX)로 용산역을 출발, 정오께 함평역에 도착한 뒤 바로 함평 다이너스티CC에서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함평나비축제 행사장에서 친환경농업 현장과 나비곤충생태관 등을 둘러본 다음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역인사 300여명과 만찬을 갖는다.

김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하의도에 도착, 곧바로 선산을 살펴보고 10시40분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에 걸릴 현판 글씨를 써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후 6시 KTX편으로 상경한다.

이번 방문과 관련, 김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고향 방문일 뿐이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김정일과 만났으면"

DJ, 日 아사히신문 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일 발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전차나 비행기도 낡고 연료도 부족해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좋겠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일수록 만나야 한다"며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 수 있고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옌볜 조선족 급감…자치주 흔들

이농 심화…한족이 터전 장악

중국 조선족들의 이농 현상이 심화하면서 조선족 자치주인 옌볜을 비롯한 중국내 조선족들의 터전이 속속 한족들에게 장악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머지않아 조선족 자치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옌볜의 조선족 인구는 80만명으로 옌볜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

자치주 건립 초기 50%가 넘었던 것이 돈벌이를 하러 한국과 중국 남부 연해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한족이 차지하면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조선족은 더 이상 '다수민족'이 아니다.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금만 보더라도 조선족들의 실추된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올해 책정된 옌지(延吉)시 농기계 보조금 400만위안 대부분을 한족들이 차지했다.

한국으로 가거나 중국 연해지역으로 진출하면서 판 농토를 한족들이 차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지원금까지 나오지만 조선족들이 한 자녀만 낳거나 아예 출산을 기피하면서 조선족 학교들의 폐교도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40대 사업가 카자흐스탄서 피랍

카자흐스탄에서 22일 한국인 사업가 1명이 괴한들에 납치돼 외교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정오) 카자흐에서 N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남모(44) 씨가 출근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에 납치됐다.

납치범 측은 이후 회사측에 연락,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알마티에 소재한 대사관 분관 직원을 파견, 현지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연합뉴스